

# 다문화가정 부부관계가 유아의 또래관계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 결혼이주여성가정을 중심으로

김진희(경북대 박사과정) · 임지영(경북대 부교수/장수생활과학연구소 연구위원)

유아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초의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부모로부터 사회 적응 능력을 배우며, 부모간의 갈등에 민감하고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Grych & Finchman, 1990), 원만하고 긍정적인 부부관계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불안정한 가정은 유아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강은정, 2010; 김해영, 1995). 특히 다문화가정에서는 부부관계의 불평등성과 같은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유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일반가정과 다를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가 최근에 급격한 속도로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구성을 살펴보았을 때 청소년들보다 영유아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다문화가정 자녀들 중 6세 미만 61.9%, 7~12세 이하 24.9%, 행정안전부, 2011), 유아기가 또래관계와 정서지능이 외현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이며, 미래 적응문제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그중에서도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관계와 유아의 또래관계 및 정서지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구·경북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의 다문화유아와 일반유아 각각 60명씩 총 12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들의 어머니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수집한 자료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earson 상관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부부관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허윤정(1997)의 척도와 최규련(1994)의 척도를 사용하였고, 유아의 또래관계 및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혜영(2004)과 김경희(1998)의 교사용 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각 척도의 신뢰도는 결혼만족도 .94, 부부갈등 .98, 유아의 또래관계 .84, 유아의 정서지능 .96이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 간에는 일반가정( $r=-.940, p<.01$ )과 다문화가정( $r=-.398, p<.01$ ) 모두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의 또래관계와 정서지능 간에는 일반가정( $r=.723, p<.01$ )과 다문화가정( $r=.450, p<.01$ ) 모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부부갈등과 유아의 또래관계( $r=-.294, p<.05$ )간에서 유의미한 부적상관, 그리고 결혼만족도와 유아의 정서지능( $r=.304, p<.05$ )간에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이 유아의 또래관계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의 경우 결혼만족도( $\beta=.30, p<.05$ )는 정서지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부갈등( $\beta=-.29, p<.05$ )은 또래관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가정유아는 다문화가정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아의 또래관계나 정서지능이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부부갈등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일반가정유아는 부부관계로부터의 직접적인 영향을 완충시켜줄 수 있는 조부모나 친척, 이웃, 또래, 교사 등의 다양한 외부효과가 있는 반면, 다문화가정유아는 일반가정유아보다 사회적 지지가 적기 때문에(현경순, 2008) 또 다른 보호요인이기도 한 가족,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 이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유아와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부관계 향상을 위해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남편, 시부모 교육프로그램,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는 바이다.